

'94 제2검정소 우수농장상 수상농장

광 암 축 산

취재 : 유재도 기자

'94년도 본회 제2 검정소가 시행한 종돈능력검정에서 우수농장을 수상한 광암축산! (대표: 이내홍, 전남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산48번지)

광암축산은 지난 3월 6일 제2검정소에서 실시한 종돈능력검정에서 우수농장의

영예를 안았다. 활천농장의 이번 수상은 호남지역(제주포함)에서 처음으로 수상한 것이다.

광암축산은 지난 한 해 동안 제2검정소에 12두의 챔피온돈 출품, 평균선발지수 208.16점, '94년 한 해 동안 종돈 15두를 출품하였다.

본 농장의 이내홍(45)대표는 25년 전부터 축산업을 시작, 1978년에 광암축산을 설립하였고 지난 '93년부터 검정소에 종돈을 출품하여 그해 11월 제1검정소에서 최우수돈(요크셔, 암돼지)과 '94년 1월 제2검정소 최우수돈(요크셔, 수돼지)을 탄생시켰다.

광암축산의 농장부지는 총 5천5백여평에 6천두 규모로 10여동의 돈사를 직원 6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도입하여 모든 기록과 세부사항들을 한 눈에 다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우선 기초자료 입력으로 종빈도, 종모돈, 신규 등록관리가 가능하고 매일 발생하는 일일자료와



광암축산 대표 이내홍씨(좌)와 동생 이내선씨(우)

예방백신프로그램 및 판매종돈, 경영분석과 사료구입 등 모든 업무를 광암축산 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고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특히 '84년에 자체 「양돈사양 및 경영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을 개발, 가장 먼저 양돈산업에 컴퓨터를 도입한 농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지난해 8월 CHS 현미경을 도입 용돈의 정충검사를 시작하였고, 지난해의 극심한 더위에 광암축산은 사료에 미네랄 등의 첨가와 예방백신의 접종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모계통 종돈수입과 올해 부계통의 종돈수입으로 종돈개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내홍대표는 “우수농장상을 처음으로 호남지역에 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정부에서는 검정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해 주어야 하며 세계속의 축산업이 되기 위해선 농민 스스로가 발 벗고 뛰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25년 동안 축산업에 대한 경험과 컴퓨터를 일찍부터 도입한 이내홍·이내선 형제의 집념이 WTO 출범인 올해 우리 나라 양돈산업을 이끌어나갈 진정한 양돈인일 것이다.